

열린병원

박남규 / 한양대 대학원 건축학과
Designed by Park Nam-Kyu

병원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병원이 가지는 Image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표현의 방법으로 매스를 분절시키고 ("Patten Language"에서 분절된 매스는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전해준다.) 혼잡한 외부에 대해서 한적한 중정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전개로 한 채 계획을 시작하였다.

전체배치는 Kahn의 형태원리를 공부하고 응용하였다. 그래서 5:3의 비례를 기본으로 정하였고 Grid의 간격은 병동의 기본평면구성을 전제로 6m를 사용하였다. 주변이 재래시장, 낮은 저층의 주거 지역들이 뒤로 펼쳐져 있다. 먼저 Grid로 질서를 부여하고 다음은 가로의 대응을 위해 매스를 절단 분리시킴으로써 도시와 대화의 장을 열었다. 여기서 Negative Space를 이용하여 분절된 매스를 결합시켰다. Atrium을 주변으로 통로를 두어 동선을 해결하였다. 여기서 복도의 길이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처음에 의도한 분절된 매스와 볼륨을 가진 입면을 구성하였다. 그럼으로써 기본적으로 환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결과를 의도하였다.

기능적으로는 수평형 병원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 결과 병동부를 조용하고 채광이 좋은 소로쪽으로 배치하고 큰도로 쪽의 소음을 막기 위하여 두꺼운 매스(외래부와 중앙진료부서)를 설치하였다. 이중 중앙진료부서는 인접 건물 쪽으로 배치하였고 외래부서는 조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였다.

앞으로는 의학의 발달로 진료나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므로 인근 주민을 위한 예방의학 강의실을 두었다.

주민을 위해 좀더 가까운 열려 있는 병원을 바라며...

